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 오세훈, ‘張 사퇴론’ 신중

(정동화)

“당 대표제도로 정치 과잉 원내정당 중심으로 바꿔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며 “정동화 대표 체제의 해체보다는 중앙당 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혁신포럼(회장 김기현 의원) 주최로 진행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 주제 강연에서 “한국의 당 대표 제도가 대한민국 정치 과잉 사회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자만 쫓는 사건만 생겨도 정책으로 접근하면 될 일을 당 대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등 모든 사회 문제에 대표가 관여하고 있다”며 “정권이 일상화되고 견제할 정책 토론 대신 모든 게 이념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치하면 ‘싸움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정치 풍토가 돼 버렸다”며 “현실적으로 중앙당 체제 폐지가 어렵다면 원내정당 중심으로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주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진심으로 재선거를 바라는가,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가로 분류하면 저는 후자 쪽”이라며 국민의 힘 강동원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근거와 거리를 뒀다. 이어 “선거 결과가 저한테 유리하게 나오기 전에도 개표 중지만 예기했지 재선거는 말하지 않았다”라며 “일관성 있는 절제된 메시지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인도하고 지지하지 않았을 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강연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정직성 원내대표 인터뷰를 유심하 봤다”며 “변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도 거하게 치른 상황

에서 피를 흘려가며 변화를 하게 된다”며 “부작용만 있을 것이고, 우리 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많은 구성원이 동의하는 상태에서 상책 해 최소화하면서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당내 혁신과 변화 기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혜롭게 해오신 중진 의원님들의 무게감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원내 의원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수 재건을 위한 방향으로 진심, 포용, 유능, 신뢰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한 그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다시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직성 원내대표와 표창원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송영길,李大통령에 결선서 김민석과 단일화 얘기…李 ‘잘하라’ 긍정 반응”

박지원, ‘宋 관저 만찬’ 전언 소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뜻을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일 의지를 드러낸 정철재 대표를 상대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대하는 구도에서 계파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

원은 전날 송 전 대표가 통화에서 “(3차 구도의 전당대회에서)김민석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결선 투표에서 (표심을)모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의사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수긍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네통령이 잘하라’고 긍정적으로 말했었다고 말했다”며 “송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4년 이후부터 당 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를 하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있다.

3인 이상의 대표 후보자가 있고 단독 과반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송 전 대표의 전대 전략은 “결선 투표에서 탈락한 3위 후보가 결선에 오른 후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다만 8월17일 본 경선에서 단독

과반 확보 후보자가 없을 경우, 투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최종 당 대표 선출은 그 다음 주일쯤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 기간 중 김민석-송영길 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를 26일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선관위 설치 및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70세 이상 서울시민 버스요금 무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일단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영은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제2회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연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일단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영은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제2회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연향뉴스

29일부터 28개 공공기관·단체 채용실태 특검감사

경기도, 채용과정 철저하 조사… 위반사항은 문책 요구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9일부터 7월28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등 28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검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2017년 이후 매년 채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반은 3개 반, 17명으로 구성해 각 기관의 채용계획 수립부터 예비합격자 채용까지 전과정을 점검한다. 대상은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한 24개 공공기관과 4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28개 기관·단체다.

올해 종합감사(채용 포함)를 받은 경기도수원원리대립경기장관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하는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는 제외됐다.

감사 범위는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된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 비정규직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이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실

시문 채용을 점검한다.

구체적인 감사 항목은 ▲채용 계획 수립 및 절차 준수 여부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시 공정성 확보 ▲서류·면접 전형 과정 투명성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채용 절차 적법성 등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 과정에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에 문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는 감사보고서 형태로 공개해 도민 신뢰를 제고한다.

수원·재용 기자 cjs7749@siminilbo.co.kr

왕십리 일대 관광·문화복합공간 서울시, 호텔 242실도 공급키로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왕십리역 역세권개발사업(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행당동 293-11)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구 행당동 293-11번지 일대는 왕십리 광역지점의

일지적 강점을 활용한 관광·상업·문화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문화 거점으로도 조성될 전망이다.

지하 8층, 지상 31층 규모로 추진되며, 호텔 242실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전시시설, 공연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계획됐다. 연면적은 약 1만8000㎡ 규모다.

기존 주차장 부지는 프리미엄 호텔과 문화시설, 공연주차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왕십리역 일대를 단순 상업가에서 예술·여가·소유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열린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지상 2층 공공전시시설과 지하 2층 공연주차장을 계획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인천시,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시설사업 본격화… 내년 착공·2030년 완공

기본계획·입찰안내서 용역 착수

1日 26만7000톤~30만톤 처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동구 백범로 26 일원 남동정수장에 오존처리 및 활성탄흡착 공정을 갖춘 하루 3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동수계권역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사업이다.

인천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단계별 도입계획에 따라 정수장별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평정수장은 2020년 사업비 407억원을 투입해 시설 도입을 완료했고, 공촌정수장은 2021년 사업비 550억원을 들여 도입을 마쳤다. 수산정수장은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동정수장은 인천시의 마지막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사업으로, 이번 용역 착수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시는 환경부의 ‘2040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규모는 기존 26만7000톤/

일에서 30만톤/일로 확대됐으며, 총사업비 1081억여에 반영됐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환경 변화와 고탁도 발생, 조류 증가 등으로 정수처리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 전체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에 비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남동수계권역에 안정적인 고도정수처리용량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사업은 기존 범입수 생산 시설 이전과 약품점진적 일부 철거를 포함하는 고난도 공사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복합공정 간 연

계·사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6년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용역을 시작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은 70만 남동수계권역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사업”이라며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착수 보고회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근=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천 동구·중구(내륙)의 통합 출범

2026년 7월 제물포구의회 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제물포구의회